

협회 소식

제3차 이사회



협회는 지난 4월 2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토포즈룸에서 신훈 신임 회장을 비롯한 이종수 부회장, 윤오수 상근부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신훈 회장은 취임 후 처음 갖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협회는 업계의 시급한 문제와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만장일치로 의결된 신임 이종수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현 상황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극복해가자"고 회원사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이사회를 마치고 최근 주택법 개정과 관련해 건교부 서중대 주거복지본부장의 특강이 있었다.

서중대 본부장은 "정부는 주택업계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계의 협조를 구했다. 주택법 개정 내용과 향후 하위법령 정비 방향에 대해서 본부장은 택지비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이미 매입한 땅은 매입 가격이 투명하게 입증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기로 했으며, 지하 주차장이나 초고층 아파트 등의 특수한 주택 구조도 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운영홍보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4월 10일 서울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봉희룡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홍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오는 9월부터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에 대해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약 기회를 주는 가점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청약 제도 개편 방안과 지난 4월 2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한편 협회는 관련 법령 개정 시 민간택지비 산정방식과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협회에서는 주택 사업자가 소유권보존등기 시 부담하는 취·등록세를 부과세로 신규 주택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보증금을 감리비 지급 기준과 동일한 직접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선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운영홍보위원들은 신규 주택 입주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사업자의 취·등록세 부과세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 유관 기관과 공조해 건교부는 물론 건설교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홍보위원회 내에 설치기로 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주택정책·제도, 분양, 금융, 세제분과위원장에 김경호 현대건설 상무, 재개발·재건축분과위원회 위원장에 김경철 동부건설 상

무, 택지개발분과위원장에 소경용 대우건설 상무, 건설기준과 하자분과위원장에 김시환 동문건설 상무가 선출됐다.

제6대 신훈 신임회장 취임



협회는 지난 4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6대 신훈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이날 신 회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임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주택업계를 대표하는 회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최근 주택업계는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협회가 앞장서서 회원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 해외 시장 정보를 조사해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회장은 "우리 모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어려움은 능히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식을 마치고 신 회장은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앞으로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신 회장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입사한 노재원 경력사원과 박종혁 신입사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주택협회 출입 기자단 초청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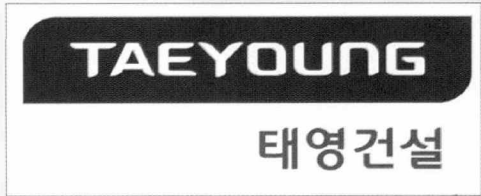


협회는 지난 4월 9일 출입 기자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훈 신임 회장은 "주택협회는 건설업계와 국민, 정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취임 인사를 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이 20~30%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대해 신 회장은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

하기 전에도 세금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책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이미 하락하고 있었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고, "공급 확대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1~2년 후 주택 시장에 또 한 번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때문만은 아니다. OECD 국가 중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나라는 없다. 규제를 한다고 해도 집값 안정이 정착되지 않는다. 집값 상승은 세금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으로 잡을 수 없다.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신임 회장으로서 회원사들의 권익과 주택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 태영건설로 사명 변경하고 새 CI 선보여



태영건설(사장 박종영)이 여의도 사옥 시대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기업이미지통합(CI)에 나선다.

태영은 창립 34주년을 맞아 본사를 여의도 태영빌딩 신사옥(구 SBS사옥)으로 이전하고, 건설 부문 특화를 위해 사명도 ㈜태영건설(영문 TAEYOUNG Engineering & Construction)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이 새로 발표한 CI는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 촬영 시 양손의 엄지, 검지를 이용해 구도를 잡는 모습을 형상화한 '창조의 창(Creative Window)'으로 미래와 변화를 내다보는 시각과 마음의 창을 열고 도전과 창조적인 자세로 고객에게 다가가기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정신을 담고 있다.

현대건설, 창립 60주년 엠블럼 발표



현대건설(사장 이종수)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건설 명가로서의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담은 엠블럼과 슬로건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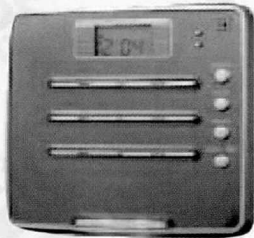
새롭게 선보인 현대건설의 엠블럼은 창립 60주년을 시각화한 것으로, 현대건설의 도약 의지와 발전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의 상징 색상인 녹색에 오렌지색을 이용, 변

함없이 처음처럼 약동하는 젊고 건강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또한, 60이라는 숫자를 무한대 기호(∞)로 풀어내고 현대건설의 새로운 역사 100년과 무한한 미래 발전의 중심에 현대건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무한대(∞) 안에 오렌지 점을 넣어 강조했다. 엠블럼과 함께 발표된 슬로건은 '비욘더 더 센추리(Beyond the Century)'로, '세기를 넘어 무한한 미래로' 발전해가는 현대건설의 열린 미래를 뜻하며, 한 세기를 뛰어넘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도전 의지도 함께 담았다.

대우건설 '바이오 라이트 시스템' 개발

대우건설(사장 박창규)은 거주자의 생체 리듬에 따라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바이오 라이팅 시스템(Bio-Lighting System)'을 개발해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실내 조명으로 우울증이나 정서 불안, 시차 적응 등을 치료하는 '라이팅 테라피(Lighting-Therapy)'를 국내 최초로 실생활에 적용한 것으로, 생활 조건에 맞게 실내 조명의 색온도와 조도를 바꿔준다고 한다. 바이오 라이팅 시스템은 학습(Study), 휴식(Relax), 취침(Sleep), 기상(Morning) 모드 등 네 가지 종류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이 시스템을 이달 중 분양하는 대구 월드마크 웨스트엔드에 첫 적용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환경과 첨단이 어우러진 신개념 아파트가 눈앞에



삼성물산(사장 이상대) 건설부문은 서울 일원동 레미안 갤러리에서 '레미안 스타일' 발표회를 갖고 새로운 개념의 아파트를 선보였다. '07레미안 Housing Sp-HERE'란 집을 둘러싼 4e환경, 예컨대 생태 환경(Eco), 자연 에너지환경(Ener-gy), 감성

디자인환경(Emotion), 미래 기술환경(Emerging)으로 정의하고 각 환경에 접목시킨 첨단 기술과 디자인들을 선보였다. 이 중 Eco와 Energy와 관련해서는 △지중열 시스템과 태양광 시스템 △수질 시스템과 쓰레기 이송설비 △환기 시스템 등 레미안에 실제 적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기술들이 소개됐다. 주택 트렌드로 하우스핑 스피어(Housing Sphere)라는 개념을 도입한 삼성물산은 '자연관'과 '미래관'으로 구성된 전시공간에서 자연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지는 미래 주거환경을 제시했다. '자연관'에서는 지열을 이용한 천연에너지 냉난방 설비인 지중열 시스템과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 시스템 등 레미안에 실제 적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친환경 기술을 소개했다.

현대건설, 새봄맞이 입주고객서비스



현대건설(사장 이종수)이 새봄을 맞아 전국 현대아파트 4만여 가구의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주는 등 입주고객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들이 화사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도록 4월 한 달 동안 발코니 유리창의 겨우내 찌든 때와 황사먼지를 말끔히 청소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또 새봄 인테리어 정보와 봄철 건강관리법 등 다양한 봄맞이 소식을 담은 고객매거진 <HILL'S Promise> 봄호를 힐스테이트 입주예정고객 4만여 가구에 2일 무료 발송했다. 이 잡지에는 고객들이 자부심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계의 유명 주거지 탐방기와 건축가 인터뷰, 힐스테이트 광고이야기 등 고품격 정보도 수록됐다. 현대건설은 이와 함께 앞으로 단지내 커뮤니티 축제와 환경친화캠페인 등을 전개, 고객들의 주거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SK건설, 식목일 맞아 '우리 동네 행복나무 심기' 행사



SK건설이 식목일을 앞둔 4일 기존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리 동네 행복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 '풍암동 SK VIEW'를 비롯해, '중앙동 SK타운', '구일역 SK HUB 秀'에서 SK건설 임직원 100여 명과 아파트 입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5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 단지 내 중앙광장 등에 기념수를 심거나 산철쭉, 회양목, 영산홍 등 관목류를 심었다. 이 행사는 SK VIEW 아파트, 주상복합, 고급 빌라 입주 고객을 위한 SK건설만의 특별 서비스인 '비타민 서비스'의 일환. SK건설은 '비타민 서비스'를 통해 단순히 아파트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선사할 예정이다.